

최종 승리는 <자유롭당>의 품에



▶▶ 기호 1번 <자유롭당>이 당선을 축하하는 모습.

금일 5시경 개표를 진행한 결과, '자유롭당'이 49.1%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자유롭당'은 "과목별로 좋아하거나 잘하는 과목에 대한 토론 멘토링 활동과 학습멘토링을 실시하겠다.", "학생들이 관심있어하는 동아리를 직접 편성하고, 동아리 시간을 확대하겠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

는 분야를 방과후 수업으로 편성하겠다.", "선택과목 중도 변경제를 도입하겠다."라며 4가지 공약을 내세우며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의 실시를 주장했다.

'자유롭당'은 당선 소감으로 "민고 뽑아주셔서, 우리 당이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멘토링 수업, 동아리 확대,

방과후학교 개설, 선택과목 중도 변경 등 내세운 공약 모두 실시하겠다. 또한 학생모두가 학생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당찬 포부를 외쳤다. "현 상황에 맞게 다시 면밀히 따져보고, 국민 여러분을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이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선거 유세기간 동안 내세웠던 공약들이 잘 지켜질지 추후의 상황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 방향성, 치열했던 토론회 현장을 포착하다”

9일, 교육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틀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각 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오가며 정책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이루어졌다. 본 고에서는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그 열정적인 현장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자유롭당>,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해

정당 1 '자유롭당'은 학생들로 하여금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배우게 하여 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유로운 교육을 주장했다. '자유롭당'은 자유로운 교육의 예시로 자유학기제와 멘토링 활동을 제안했다. '자유롭당'에서 제안한 공약들은 다음과 같다. 자유롭당은 토론 멘토링 활동과 학습 멘토링 활동을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리 시간을 확대하고 다른 동아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과목

을 조사한 후, 전교생의 5% 이상이 선택한 과목을 방과후 수업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과목을 각 학기마다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인 '선택과목 중도 변경제'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유롭당'은 '히든카드'에서 소개된 청소년 A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는 사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4인 이하의 소규모 멘토링, 화상 토론회 등으로 비대면 공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의존, 우울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 상담, 토론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등합시당>,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해야

정당 '평등합시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바뀐 수업 환경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

들에게는 위클래스에서 온라인 고민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비대면 시대에서 마주하는 무분별한 거짓 정보, 그리고 폭력적인 미디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시대로부터 비롯된 학생들의 우울과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캠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평등합시당'은 당의 기조를 반영한 여러 공약을 내세웠다. 소수자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시스템을 확장하고, 사교육에의 높은 의존으로 인해 축소된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주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당>, 활용성, 범용성 위주의 자격증 교육 시행되어야

'교육활당'은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실용적, 실천적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활당'은 정보시간을 늘려 실용가능한 실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유동적인 교육,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주석, 가상화폐, 간단한 은행업무 등에 관한 경제 관련 수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활용성 및 범용성이 높은 자격증 합격을 위한 지원을 학교 측에서 제공하고, 정보 교육과 높은 연관성을 지닌 부류의 자격증은 정보 교육 시간과 연계하여 수업하는 등 자격증 수업 운영에도 힘쓰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에티켓을 가르치고 스스로 자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글 정치부 강하은 기자
정치부 김나현 기자
정치부 조신유 기자

지면 안내

1 선거 종합

당선기사
2021 공약 토론회

2 정당 인터뷰

기호1번 <자유롭당> 인터뷰
기호2번 <평등합시당> 인터뷰
기호3번 <교육활당> 인터뷰

3 The Citizen 이모저모

시민단체 <SEE> 인터뷰
시민단체 <공평한자유> 인터뷰

청소년 A의 죽음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발표

4 The Citizen 이모저모

시민패널 인터뷰
언론팀 <MSG> 취재후기
[포토]토론회 순간 포착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교육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시민단체 <SEE>와 시민단체 <공정한자유>는 교육에 대해 정당들과는 또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신문사는 <SEE>와 <공정한자유>를 만나, 이 시대의 교육에 대해 물었다.

▶▶ 관련기사 3면

사령

편집국	편집장 강하은
정치부	이다현 강하은 강하은 김예강 김나현 조신유
사회부	부장기자 김민경 김민경 함혜원 전지예 최지우송민경 권지혜

기호 1번 <자유롭당> 인터뷰

“자유롭당, 학생이 중심이되는 교육에 앞장서다.”



자유롭당



▶ <자유롭당>의 박예찬 대변인과의 대화

Q 자유롭당에서 주장하는 교육은 무엇이며, 그 교육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인가?

우리 당은 자유로운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과목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필수 과목을 진

행하고 부가 교육, 즉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배울 수 있게 하여 교육의 폭을 넓힐 것이다.

Q. 자유로운 교육의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는가?

첫번째로, 자유학기제 같은 제도가 있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관련 분야 또는 관심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두번째로, 자신이 잘하는 과목 또는 관심 과목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토론 멘토링 활동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Q. 학생들이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때 교육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필수 수강 과목을 들어 교육의 폭을 보장하고, 모든 과목이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던 관심 과목 말고도 연계되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자유학기제의 장점이며 결국에는 교육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Q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친구들이 겪는 선택의 어려움은 어

떻게 보완할 것인가?
일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탐색활동을 제공하고, 그럼에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활동들을 더 지원할 수 있다. 또, 선택과목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기별로 새로운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진로를 탐색하는데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Q '청소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자유로운,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원하는 과목의 선택지를 제공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문 교육을 기본 바탕에 두고 그 안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 틀 안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글 이다현 기자
강가은 기자

기호 2번 <평등합시당> 인터뷰

“평등한 교육,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평등합시당

Q. 당의 이름과 로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를 담아 평등을 이룸에 넣었다. 로고에는 평등을 상징하는 저울과 백인여성과 흑인 남성을 두어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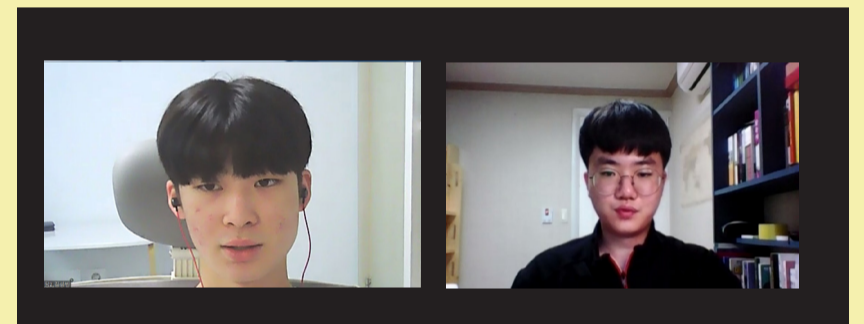
Q.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평등한 교육을 받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교육이 제공되면 능력의 차이와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당을 운영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Q. 평등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장애인 또는 소수자의 경우에는 평등한 교육이 제공 되지 않아서 점자 교과서 보급, 특수학교, 특수학원 시설의 확대, 오디오북 제공 등을 통해 학습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퇴나 홈스쿨링으로 따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무료 교육시스템 확장, 직업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Q. 지역이나 소득 수준별로 학습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격차를 해결할 것인가?
혼자 공부하거나 사교육의 차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때 무료학습소 제공,



▶ 기호 2번 <평등합시당>의 김성빈,박태휘 대변인과의 인터뷰

직업상담 시스템 구축, 무료 교육시스템 확장, 인터넷 강의 장비와 데이터 지원을 해서 해결할 것이다.

Q.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르게 생각하나?

잘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평등하다고 생

각한다. 평등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글 강하은 기자
김예강 기자

기호 3번 <교육할당> 인터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 기호 3번 <교육할당>과의 인터뷰 시간

Q. 당의 이름과 로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A. 미래에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청소년들의 교육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책임지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당명을 교육 할당이라고 정했다.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해지기 위함이므로, 우리들의 행복과 교육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생각하여 로고에 저울을 넣었다.

Q2)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돕거나, 이론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실용적인 교육의 예시일 것이다.

Q3) 실용적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또 알고 싶어 하는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Q4) 현행 교육제도에서 실용적 교육을 위해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교육을 중시하면서 실용적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Q5) 실용적 교육을 중시했을 때 비실용적 교육을 경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실용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교육이 좋지 않은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은 곧 인생의 경험이다. 따라서 실용적 비실용적 교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하기로 했다.

Q6) <교육할당>은 여러 실용적인 교육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주식, 가상화폐, 코딩 등에 집중했는데, 특별히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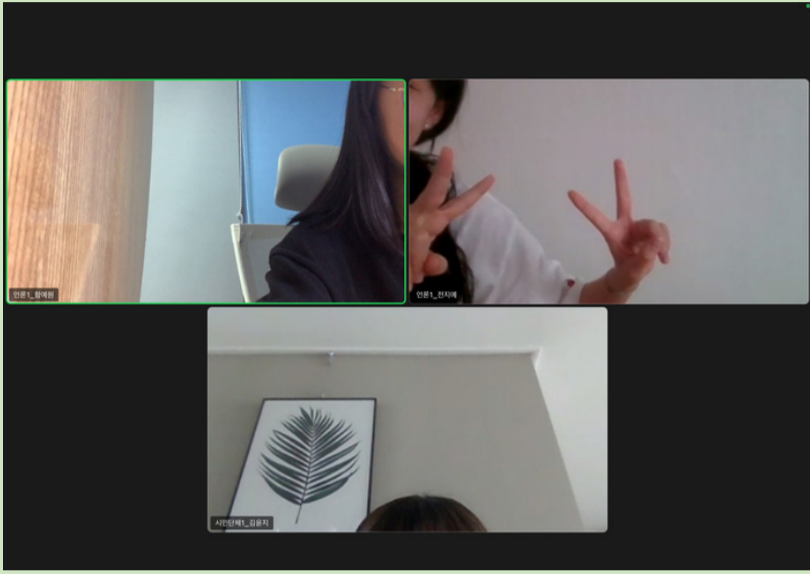


교육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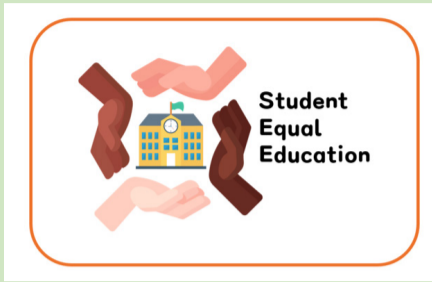
변화하는 시대의 속도와 4차 산업 혁명에 맞춰 나가려면 경제와 기술면에서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한다. 특히 주식과 가상화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학생들이 잘못된 경제관념을 갖지 않게 하기위해 실용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코딩과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은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글 김나현 기자
조신유 기자

시민단체 <SEE> 그들은 누구인가?



▶ 시민단체 SEE와의 인터뷰 현장



Q. 행복한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등한 기회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차이로 학원이나 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자유로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이 외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청소년이 정말 원하는 자유로운 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정말 배우고 싶은 부분을 배우는 것이 자유로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기회의 평등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사의 개인적 가치가 포함되는 일 없이 학생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Q. 평등한 교육이란 무엇이며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학생들의 성적이나 성별, 소득수준 등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교육소외는 왜 발생하며 교육소외 계층

을 위해 어떠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가정의 소득 수준의 부족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해서 소외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빈곤한 가정 학생 경제상황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인재전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는데,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생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제도가 과연 공평한지, 더 나은 제도가 있을지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지방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도권 학생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글 전지혜 기자
함예원 기자

Q. 단체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tudent equal education 학생들의 공평한 교육인 see의 약자입니다.

Q. 단체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교육기회의 평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공평한 자유> 현상윤 대표 인터뷰



공평한 자유

Q. 이번 토론과 선거에 임할 자세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자유와 개성, 공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시민단체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평과 개성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Q. 시민단체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자유와 개성입니다.

Q. 자유로운 교육 vs 평등한 교육 vs 실용적 교육 중,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들어보면 차별을 당하거나 불평등한 제도가 많다고 합니다.

Q. 지금 교육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자유와 평등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 사교육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적 사정에 따라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생겨 교육 불평등이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 추진 하고 싶은 교육 제도가 있나요?
고교입시제도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교육 제도가 있다면 그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무엇

인가요?
고교입시제도나 사교육 등의 교육 제도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행복한 교육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과 조건에서 뒤처지는 사람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권지혜 기자
최지우 기자
송민경 기자

시민단체 SEE 시위!

시민단체 SEE는 금일 오후 3시 45분경 교육적 평등을 요구하는 “학교 내에서 정치적 또는 성별 간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위를 진행했다.

시민단체 공평한 자유, 해결 방안을 요구하다

금일 4시 10분경, 시민단체 공평한 자유는 개방형 교육 과정, 학생 인권 보장, 블라인드 채용 확산, 고교 입시제도 학생의 선택권 보장, 자율학기제 내신화 등의 구체적인 제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청소년 A의 죽음... 누가 그를 죽였는가?

청소년 A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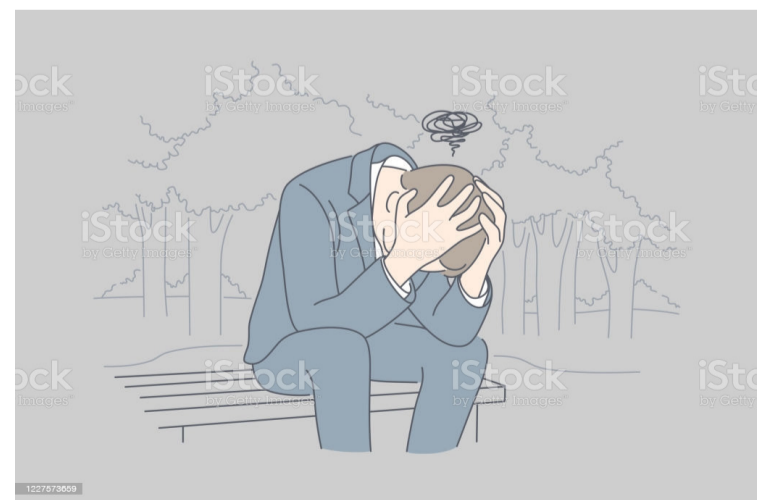
청소년 A의 죽음에 대해 취재했다. 친구 B는 열정적인 학생이었던 A가 비대면 교육이 되면서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A의 어머니는 A가 비대면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말했다며 A를 신경쓰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비대면 교육이 되면서 학생들의 생활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학생들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각 정당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정당

‘자유롭당’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문제로 사교육이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멘토링이나 화상 토론회 편성과 스마트폰 과의존과 우울증 문제 보안을 위한 비대면 상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정당 ‘평등함시당’은 청소년 A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정신적 안정과 스마트 기기 교육, 온라인 캠프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당 ‘교육할당’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정보시간 확대, 경제 관련 수업 운영, 자력증 수업 운영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시민단체를 또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먼저 시민단체 ‘SEE’는 경제적 형편에 따른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가 온라인 학습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단체 ‘공평한 평등’은 비대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혹은 정신적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학생들의 삶의 질 개선, 비대면 프로그램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 권지혜기자
송민경 기자



시민패널을 만나고 오다



▶▶ 인터뷰에 참여한 조수진, 장영주 시민패널

Q. 지난 시즌 'The Citizen'에 참여 하셨 나요?
 조수진 : 네
 장영주 : 아니요

Q. 시민패널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 인가요?
 조수진 : 작년에는 정당으로 활동했었는데 직접 공약을 만들기 보다는 만든 공약을 보고 그 중에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내고 보충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주 : 참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재미있을 것 같았고 교육이라는 주제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시민패널에 참가하게 된 소감을 말씀 해주세요.
 조수진 : 평소 학교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았는데 의견을 표현하면서 정당을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장영주 : 교육이 관심 분야이다 보니 자유롭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Q.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조수진 : 일부지만 현재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과목이 개설되는데 신청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없어지거나 진로과목에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어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과목을 배우는 경우가 있기에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장영주 : 입시제도에서 소외계층에 대해 다양한 기회가 부여되며 긍정적 모순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지만 그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힘들다고 느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토론을 통해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장영주 : 정당들이 제시한 해결책들이나 보완점들을 보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교육제도를 펼쳐 나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지우 기자
 참여원 기자

<취재 일기>, 첫 취재를 마무리하며



▶▶ MSG 일보의 구성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MSG일보>의 명칭은 문성의 약자인 M.S, 그리고 '위대한'이라는 뜻의 영어 형용사 'Great'의 앞 글자를 차용한 것으로, '위대한 문성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위대한 문성인들의 발자취를 포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족된 <MSG 일보>는 문성인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진행된 'The Citizen'의 현장을 낱말이 포착했다. 우리 언론사는 강가는 편집장을 필두로, 정치부, 사회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부에는 이다현, 강가은, 강하은, 김예강, 김나현, 조신유 기자가 소속되어 있다. 사회부는 부장기자 김민경 기자를 필두로, 참여원, 전지혜, 최지우, 송민경, 권지혜 기자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의 펜 끝은 칼날보다 날카롭다. <MSG 일보> 구성원들은 글로써 예리하게 사회의 이면을 포착해내고, 여론을 형성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조명해내는 언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다. 정치부 소속 기자들은 교육이라는 큰 화두를 두고 참여

하게 대립하는 각 정당의 입장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포착해냈다. 정치부는 각 정당과 인터뷰를 진행해 공약의 허점을 지적했고, 토론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해 언론의 역할을 다했다.

사회부 기자들은 시위, 여러 의견제출 활동을 진행하며 정당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어 판을 흔드는 시민단체들을 취재했다. 사회부 기자들은 시민단체의 역동적인 활동에 발 맞추어 열정적인 취재를 진행했다. 본고는 우리 언론사가 발족된 이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신문이다. 문성인들의 열정적인 발자취를 담기 위한 우리의 취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MSG 일보일동

포토뉴스

토론회 순간 포착



▶▶ 9일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